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짧은 소고

우리는 일반적 경향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예를 들면 비고츠키아이디어=협력의 교육학으로 경쟁을 일삼는 현재 학교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비고츠키만 나오면 배움의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고, 근접발달지대, 혁신학교운동이 따라나오는 신념)), 자신이 모르는 정보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예컨대 비고츠키가 심리학의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역사적인 아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불멸의 아이’를 심리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지 라고 말을 하였을까 대한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당연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알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교수들이 서식하는 아카데미즘의 세계에도 엄청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정보 리터러시는 낮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정보 리터러시가 높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정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정보로부터 조직적으로 눈을 돌리는지를 일단 의식화할 수 있는 지성을 가리킨다.

우리는 늘 어떤 종류의 정보를 선호하고 또 다른 종류의 정보를 기피한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다.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명 한 명 선택하고 있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스토리에 잘 들어맞는 혹은 정합이 되는 정보는 ‘좋은 정보’이고, 그 스토리에 잘 들어맞지 않은 정보는 ‘나쁜 정보’이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 사실보다도 주관적인 바람(“통계처리를 해서 논문을 쓰는 것이 객관적이다” 라는 언명 그 자체는 역설적으로 주관적인 바람이다)

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은 ‘세계는 이런 것이다’라는 인지(認知)를 늘 압도한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자신도 포함해서)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인지를 수행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인지를 메타인지 즉 초인지(meta-cognition)라고 부른다.

‘내 눈에는 세계는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언명과 ‘나의 세계 경험에는 주관적인 편견이 섞여 있고 게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세계 그 자체>이고 <세계의 전용(全容)>이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라는 언명은 레벨이 다르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세계 그 자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언명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입장’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보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되면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어떤 특정한 입장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상이 맺히게 되는 법인데, 그런데 그 상은 반드시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김영민). 즉 입장은 인식의 조건이며 동시에 한계인 것이다.

“입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딜레마로서 나타난다. <입장에 구속되어 있음을 아는 것은 입장을 얻는 노고의 진정한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이다. 입장을 얻지 못하면 아예 볼 수도 없고, 따라서 딜레마조차 생기지 않지만 입장을 얻고 나면 그 입장에 구속된 시각과 시야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진퇴양난을 가리킨다(김영민, 1996<컨텍스트로, 패턴으로> 중에서).

김영민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시각(角)과 시야(野)의 구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심중의 바람은 이해할 수 있

으나, 인간됨의 도리 속에서 살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바람의 성급한 성취를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각(無角)의 깨달음을 말한 이들도 있었고, 신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보는 듯한 호언한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인간들이 분류한 학문의 한 분야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의 길고 깊은 힘이 허여한 눈으로 이쪽 저쪽 다 훑어보며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장과 각(角)과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얇은 안타까운 욕망 속에 아픔으로 느껴지는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됨을 장구한 세월 동안 선도해왔던 신의 밀어(密語)요, 우리의 아름다운 조건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김영민은 이러한 입장을 가지는 것을 자신의 자리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사물의 한 그림자, 혹은 한 켠을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에 지나지 않다고 역설하고 있지 않은가?